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4 2025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질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 2025 / 4

시절 인연	02	계를 스승으로 삼아라
법정 스님 따라 하기	07	왕의 자리를 보시하다
법정 스님 편지	10	어제 엮서 띄웠는데, 오늘 사진과 편지가 와서 반가웠다.
법정 스님 향기	13	법정 스님이 사랑한 '착한 산짐승'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5	보덕정광 普德淨光 주야신 2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17	화전민의 오두막에서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1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5년 4월 1일 발행 / 통권 362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편집인 덕조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간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g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계를 스승으로 삼아라

어지러운 세상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수계를 받게 된 인연에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길 중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길을 선택한 것에는 저마다 사연이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하고 순간적인 결정으로 오는 기회가 아니라, 수많은 세월 속에서 익혔던 인연이 무르익어 계戒를 받게 된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계는 삶의 질서이며, 청정한 생활 규범이며, 부처님이 되는 근본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무엇으로서,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답하기를 ‘이계위사(以戒爲師, 내가 평소에 너희들에게 일러준 청정한 생활 규범, 계를 스승으로 삼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청정한 생활 규범을 몸과 마음에 익히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길상사에 오실 때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승용차를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만약 차가 다니는 길에 신호등이 없고, 차선이 없고, 차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는 차로와 같은 것입니다. 차로를 이탈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인데, 교통법규를 모두 지킨다면 큰

사고가 없을 것입니다. 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청정한 생활 규범이 없다면, 제 멋대로 살기 때문에 가치 의식이 없어서 세상 살기가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그 규범대로 살게 되면, 건전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기본적인 계가 다섯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에는 많은 생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목숨이 소중한 하기에 다른 존재의 목숨도 소중한 것입니다. 목숨의 무게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떤 세태에 살고 있습니까? 폭력이 넘치는 아주 무자비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 폭력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괴한 것, 이상한 짐승들이 나와서 사람을 해치는 것은 작가들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지만, 현실이 폭력으로 넘치기 때문에 이런 공연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접하다 보면 업業이 되어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흉악하고 포악해집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서로가 주고받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목숨을 헤쳐버리듯 하면 우리 심성 가운데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자비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한 것은 보시하는 마음으로 항상 남을 도움으로써 한량없는 복덕을 지으라는 뜻입니다.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경제 정의가 사라지면, 세상은 도둑들로 넘치게 됩니다. 요즘 도둑들이 굉장히

번성한다는데, 그것은 세상이 살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문 방송에서 몇십억, 몇백억씩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 책임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은 부정을 저지르는데, 우리가 남의 집 넘어가는 것쯤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의 것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은 도둑이라 하기에, 우리 심성 가운데 있는 복과 덕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부정한 음행淫行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신의와 순결을 지킴으로써 자기 극복에 힘을 키우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며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해탈법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현상으로 성 윤리가 얼마나 문란합니까? 이것은 전통적인 동양의 가족 윤리가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개인주의와 쾌락주의 물결이 너무 도도하게 밀려왔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가치 의식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성 가운데 갖춰져 있는 청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쓸데 없는 말과 이간시키는 말과 악담 등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말은 믿음을 주게 하고, 믿는 마음은 불자의 근본정신이 됩니다. 말에는 10가지 악罣이 있는데, 몸으로 세 가지, 생각으로 세 가지, 입으로는 네 가지 있습니다. 거짓말, 이간질, 악담, 과장되게 꾸며서 하는 말, 이것을 입으로 하는 네 가지 악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짓는 허물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초기 경전을 보면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때 저마다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스스로를 해친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도 갚지만, 말로서 인간관계를 흐트러 놓는 경우가 얼마

나 많습니까? 어느 수도단체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평신도까지도 침묵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매주 월요일을 침묵의 날로 정해서 하루 종일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 심성 가운데 갖추어져 있는 진실의 종자가 소멸하는 겁니다.

다섯째, 술을 마셔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은 혼미한 정신으로 실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맑은 정신으로 지혜를 얻어 인격을 완성하라는 뜻입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도 살기 어렵는데, 독한 술로 정신을 흐리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술도 일종의 기호품이지만 지나치게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는 정신질환자로 분류됩니다. 최근 술 광고에 여성이 술을 마시는 광고가 많고, 시대적으로도 여성이 술을 많이 마시는데, 남자는 술을 마셔도 되고, 여자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편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학교 다녀와서 집에 왔는데, 술에 취해 있는 엄마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은연중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계는 드나드는 출입문과 같아 개차법開遮法을 잘 써야 하는데, 계의 탄력성을 뜻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오계법五戒法은 남에게 배우는 교훈이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불자의 바른 행동이나 몸가짐입니다. 계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오계를 받은 다음에는 지난 세월 동안 지은 모든 잘못을 삼보三寶 전에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는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 묵은 허물을 벗는 일입니다.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따라 하십시오.

“계를 받는 저희들이 지난 오랜 세월에서 오늘에 이르도록,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게으른 탓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을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겠나이다. 계를 받는 저희들이 지난 오랜 세월에서 오늘에 이르도록,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게으른 탓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을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 계를 받는 저희들이 지난 오랜 세월에서 오늘에 이르도록,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게으른 탓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을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나이다.”

여기 세 번 비슷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참여하겠나이다. 참여하나이다. 참여하였나이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참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회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연비는 향에 불을 붙여 팔뚝의 일부분을 태우는 의식인데, 과거를 불살라 없애고 새로 태어나고자 하는 염원으로 예전부터 내려오는 수계의의식입니다. 계를 받기 전을 전생(前身)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금생(今生)이라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각오로 살게 되면 어제의 삶과 전혀 달라질 겁니다.

계는 지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계첩(戒牒)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를 받은 우리들은 부처님 제자로서 수계(受戒) 범명을 화두로 삼고, 서로 돕고 보살피면서 불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계의 덕이 쌓여갑니다. 모두 성불하여 참된 부처님 되십시오.

- 이 글은 2008년 12월 18일 불교기초교리 경전반 수계식에서 계사 법정 스님의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 2. 법정 스님 따라 하기

### 왕의 자리를 보시하다

그 옛날 어떤 나라의 왕은 자비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잘 보살폈다. 달마다 나라 안팎을 두루 살필 때는 수레에 의복과 약품 등 갖가지 물건을 싣고 나가 가난한 사람과 병자에게 고루 나눠 주고, 죽은 사람이 있을 때는 장례를 치러 주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그것을 자신의 허물로 여겨 자책했다.

‘내가 덕이 있었다면 백성들도 풍족하게 지낼 텐데 내 덕이 부족한 탓으로 백성들이 가난하구나. 그러니 백성들의 가난은 곧 나의 가난이나 다름없다.’

이때 인드라는 왕의 덕행을 시험하기 위해 늙은 바라문(바라문교의 수행자)으로 변신해 왕을 찾아가 돈 천 냙을 달라고 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천 냙을 주었다. 그러자 바라문은 받았던 돈을 되돌려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늙었습니다. 이 돈을 도둑에게 빼앗길까 두려우니 왕이 한동안 맡아 주십시오.”

왕은 그 돈을 맡아 주었다.

얼마 후, 인드라는 또 다른 바라문으로 변신하고 왕에게 가서 왕의 덕을 찬양하며 말했다.

“나는 본래 귀족이었으나 전생에 복을 짓지 못해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천민이 되었습니다. 외람되지만 대왕의 그 영화

를 사모하여 왕의 자리를 얻으려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나라를 맡겨 줄 수 있겠습니까?”

왕은 선뜻 왕의 자리를 내주고 아내와 자식과 함께 낡은 수레를 타고 궁전을 떠났다.

인드라는 또 다른 바라문으로 변신해 왕 앞에 나타나서, 이번에는 수레를 달라고 했다. 왕은 수레마저 기꺼이 내주고 아내와 자식과 함께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

인드라는 다시 맨 처음의 바라문으로 변신해 왕 앞에 나타나서 맡겨 두었던 돈 천 냙을 돌려 달라고 했다.

“나는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느라 경황이 없어서 당신이 맡겨 둔 돈을 따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흘 안으로 그 돈을 돌려주소.”

왕은 아내와 자식을 누군가의 집에 잡히고 돈 천 냙을 빌려서 그 바라문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왕의 아내와 자식은 그 집에서 도둑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가, 마침내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왕은 남의 집 일을 돌봐 주고 돈 천 냙을 벌여 아내와 자식을 구하려고 찾아갔다. 그러던 중 거리에서 참혹하게 죽어 있는 두 사람의 시신을 보았다. 왕은 스스로 한탄하기를, ‘나는 전생에 지은 악업으로 지금 이런 형벌을 받는구나!’ 하고 온 세계의 모든 부처님에게 전생의 자기 죄를 참회했다.

그런 다음 왕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선정에 들어 신령스런 지혜로 이제까지의 모든 일이 다 인드라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뒤 왕은 아내와 자식을 되찾고, 백성들의 간청으로 다시 왕위에 올라 나라를 잘 다스렸다.

## \*법정 스님 강론

꿈같은 이야기다. 불교의 인연 실화에는 밀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무수히 나온다. 이야기의 구성으로 보면 귀가 잘 맞지 않는 영성만 가득하지만, 이야기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설화문학이 다 그렇듯이, 그 같은 일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진실성과 그 의도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이 땅의 몇몇 정치인들이 국민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채 오로지 '대통령 병'에 걸려 어둡고 답답하고 염증 나는 짓만 끝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현실을 생각할 때, 왕의 자리를 선뜻 내주고 왕궁을 떠났다는 이런 설화는 꿈같은 이야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선하다.

설화에는 인드라가 바라문으로 변신해 덕행을 시험하는 일이 자주 나오는데, 수행자인 바라문의 행동이 때로는 잔인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시험이라지만 어째서 그런 기법을 썼는지, 문화적인 배경과 생활 습관이 다른 우리들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하다.

### 숲기행 안내

맑고 향기롭게 2025년 숲기행은 “숲길에서 만나는 명상”으로 진행됩니다. (상반기 일정)

진행일	장소	접수일
4월 19일(토)	경북 안동 하회마을 ~ 만송정 솔숲 ~ 낙동강변길 ~ 병산서원	4월 1일(화)
5월 24일(토)	강원 인제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점봉산분소 ~ 곰배령	5월 1일(목)
6월 28일(토)	강화 전등사 ~ 정족산성 동문 ~ 산성길 ~ 정족산 ~ 정족산성 남문(서해랑길)	6월 2일(월)

- 참가비 : 4월, 5월 회원 50,000원, 비회원 60,000원  
6월 회원 45,000원, 비회원 60,000원
- 후원 회원의 할인 기준 : 첫 회비 납부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최소 3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에 한해서 할인 혜택 제공
- 접수 및 자세한 설명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만 살아있는 말씀일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당시의 일로 보지 말고, 오늘 내 자신과 부처님과의 대화로 보라는 뜻이다. 그리고 어떤 배움이든지 그때 그때 배우는 일 그 자체가 알차게 사는 일이 되어야 한다.

정옥이 편지에도 그러던데, 불일佛日은 내가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정갈하게 정리 정돈을 잘하고 있다니 고맙다.

수행자修行者의 삶은 맑고 빛이 나야 자기 자신과 둘레를 정화淨化할 수 있다.

예불 끝에 항상 우리 덕조 중노릇 잘하라고 축원한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사는 것이 수행자의 살림살이를 명심하거라.

허리를 다쳤다고 말을 들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거라.

나는 이곳에 와서 해주는 밥 얻어먹고 잘 지내니 체중이 3파운드 정도 늘었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 간 김에 아는 의사로부터 종합진찰을 받았는데, 모두 정상이라고 하더라.

오늘 캐나다 영사관에 가서 입국入國비자를 받아놓았다. 초과일 지나서 동부東部쪽으로 갈 때 캐나다도 잠깐 다녀오려고 해서다. 귀국歸國은 6일이 될 것 같다. 홀로 있으려면 투철한 개인個人的 질서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수고 많을 줄 믿는다.

다시 쓸 때까지 잘 있거라.

고려사에서 법정 합장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1987년 4월 27일 덕조스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 4. 법정 스님 향기 / 백형찬

### 법정 스님이 사랑한 ‘착한 산짐승’

스님은 조계산 송광사 불일암에 거처했습니다. 조계산은 단조롭지만 바람이 많은 산입니다. 처음에 산에 들어왔을 때, ‘가랑잎을 휘몰아가는 바람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울에는 그 바람 소리가 더욱 세졌습니다. 스님은 산에는 ‘맑은 이웃’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심하지만 정갈한 나무들도 있고, 다람쥐, 꿩, 토끼, 노루같이 착한 산짐승들도 있어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산에 눈이 많이 쌓이면 짐승들이 먹이를 찾으러 내려왔습니다. 스님은 콩이나 빵부스러기 같은 것을 놓아주었습니다. 고구마도 짐승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물과 정랑으로 가는 길에 쌓인 눈을 치우다가 토끼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대숲 가에선 꿩 발자국이 외줄로 찍혀있었습니다. 개울가에도 토끼 발자국, 노루 발자국, 멧돼지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산짐승들이 밤에 물을 먹으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해질녘에 도끼로 얼음을 깨고 물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물구멍을 하나만 두면 곧바로 얼기에 숨구멍을 서너 군데 만들었습니다. 산짐승들은 물구멍 덕에 한겨울에도 흐르는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산토끼가 저녁 무렵이면 뜰로 나와 놀았습니다. 헌식대에 빵부스러기와 과일 껍질을 놓아두면 깨끗하게 먹고 갔습니다. 어느 날, 헌식대 옆에 산토끼가 썩은 통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

니 크기가 작았습니다. 어린 산토끼의 똥이었습니다. ‘산토끼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애잔해졌습니다. 한겨울 산중은 무척 춥습니다. 모든 만물이 차갑게 얼어붙은 계절에 뜨겁게 살아있는 생명체의 흔적을 보고는 걱정되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에 눈이 잔뜩 내린 밤이었습니다. 외풍이 심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뒷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산토끼 한 마리가 방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춥고 배고픈 산짐승을 흔연히 맞아주었습니다. 광에서 고구마를 꺼내 먹이고 하룻밤을 재워 보내주었습니다.

스님이 지리산 암자에서 지낼 때 일입니다. 안거가 끝나 도반들이 모두 하산하자 스님 혼자 암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양을 마치고 현식돌로 갔습니다. 큰 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고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여름철 현식돌이 깨끗했는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그 쥐가 음식을 모조리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한 끼만 했던 공양 후에 현식돌에 가면 그 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징그러웠는데 이제는 반가웠습니다. 그 쥐가 자신을 의지하며 산다고 생각하니 ‘연민의 정’이 들었습니다. 쥐는 매일 현식을 먹어 보통 쥐의 세 배가 되었습니다. 스님이 쥐에게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전생의 업보로 흉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 나와 지낸 인연으로 그 흉한 모습을 벗고 다음 생에는 좋은 몸을 받아 해탈하거라.” 쥐는 스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다음 날에 현식돌에 가보니 쥐가 죽어 있었습니다. 쥐가 스님의 말을 알아들은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염불하고는 쥐를 그 자리에 묻어주었습니다.

##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 보덕정광 普德淨光 주야신 2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고요한 선정의 낙으로 두루 다니는 해탈문을 얻었을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들은 보현의 행과 원을 구족하고 무변법계를 통달했다. 항상 온갖 선근을 자라게 하고, 모든 여래의 지력(智力)을 비추어 보고, 여래의 경지에 머물러 생사에 처하면서도 마음에는 장애가 없고, 일체지의 원을 속히 채우고, 모든 세계에 널리 나아가 모든 부처님을 두루 뵈고, 불법을 다 듣고,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생사의 한밤중에 온갖 지혜의 광명을 내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을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멀지 않은 보리도량의 오른쪽에 한 주야신이 있는데, 그 이름은 기쁜 눈으로 중생을 관찰함[喜目觀察衆生]이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보덕정광 주야신이 이 해탈의 뜻을 거듭 펴고자 선재동자에게 계송으로 말했다.

믿고 이해하는 마음 있어 삼세의 부처님을 다 본다면  
그는 눈이 청정해 부처님들의 바다에 들어가리라

그대여 부처님들의 몸을 보라 청정한 모습으로 장엄하시고  
한 생각 신통력으로 법계에 다 충만 하니라

노사나 여래께서 도량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모든 법계에서 청정한 법륜을 굴리신다

여래께서는 법의 바탕이 적멸해 돌이 아님을 아시고  
청정한 모습으로 장엄한 몸을 여러 세간에 두루 보이신다

부처님 몸 불가사의해 법계에 충만하시고  
모든 세계에 두루 나타나시니 모두들 보지 못한 이가 없다

부처님 몸에 항상 있는 광명 모든 세계의 티끌 같으사  
갓가지 청정한 빛이 순간순간 법계에 두루하다

여래의 한 터력으로 불가사의한 빛을 놓아  
여러 중생에게 널리 비추어 번뇌를 없애게 한다

여래의 한 터력으로 끝없는 화신을 나타내어  
법계에 가득하니 중생의 괴로움이 사라진다

부처님이 미묘한 음성 내어 나름대로 모두 이해케 하시고  
넓고 큰 법을 두루 내려 보리심을 발하도록 하신다

부처님이 옛날 온갖 행 닻을 때 나를 거두어 주셨으므로  
지금 여래께서 모든 세계에 출현하심을 본다

부처님들께서 세간에 출현하심 중생의 수효와 같으니  
갓가지 해탈 경지 나로서는 알 수 없네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한 터력에 들어가니  
이와 같이 미묘한 해탈 나로서는 알 수 없네

이 근처에 주야신 있으니 그 이름 기쁜 눈으로 중생을 관찰함이라  
그대 마땅히 그에게 가서 보살행을 어떻게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공손히 절을 올리고 물러갔다.

## 6.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 화전민의 오두막에서

이따금 어디론가 훌쩍 증발해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다. 허구한 날 비슷비슷하게 되풀이되는 무표정하고 무료하고 따분한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다. 내 삶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열망이 안에서 솟구칠 때면 어디론가 훌쩍 바람처럼 떠나고 싶다. 그러나 그때마다 갈 곳이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 잘못 들어서면 또 다른 타성의 늪에 갇힐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9일 오후 서울 법련사에서 법회를 마치자마자 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길을 떠났다. 어느 깊은 산골에 화전민이 살다가 비운 오두막이 있다는 말을, 한 친지로부터 전해 듣고 결심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서둘러 달려갔기 때문에 봄날의 긴 해가 기울고 땅거미가 질 무렵 가까스로 그 오두막에 당도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전기도 통신수단도 전혀 없는 태고적 그대로인 곳이었다. 시냇물 소리와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뻗속까지 스며 들었다. 어둠이 내리자 영롱한 별들이 쏟아질 듯 빛을 발했고 머슴새가 번갈아가면서 밤새 울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머릿속이 아주 개운했다. 시냇가에 나가 흘러가는 물을 양껏 떠 마셨다. 문명의 발톱이 할퀴지 않은 곳이라, 흐르는 시냇물인데도 물맛이 아주 좋았다.

처음 그 오두막을 찾아갈 때는, 사람이 거처할 만한 집인지, 돌레가 어떤지 내 눈으로 살펴보고 한 이틀 쉬었다가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하룻밤 쉬어보니 그대로 눌러 있고 싶어졌다.

다음 날 30리 밖에 있는 장에 내려가 필요한 연장들을 구해 왔다. 우선 땀감을 마련하려면 톱과 도끼가 있어야 했다. 먹을 것은 가지고 갔기 때문에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었다.

그 오두막에서 나는 꼬박 열하루를 지냈다. 내 팔자가 그러듯이 어디를 가나 손수 끓여 먹는 일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었다. 처음 2, 3일은 전기가 없어 어둠이 좀 답답하게 여겨졌지만 이내 아무 불편도 없었다. 촛불이 훨씬 그윽해서 마음을 아늑하게 다스려주었다. 문명의 연장에 길이 든 우리는 편리하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은, 무엇보다도 사람 그림자를 전혀 볼 수 없는 점과 맨날 그저 그렇고 그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미치지 않는 점이었다. 나는 근래에 와서 사람을 그리워해본 적이 전혀 없다. 앞에서 사람 그림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보다 솔직한 표현을 쓴다면 '사람꼴'이라 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시달린 처지라 사람꼴 안 보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다.

그곳에 살면서 신문 안 보고 방송 안 들어도 전혀 불편이 없었다. 우리는 마약중독자처럼 습관적으로 신문을 펼쳐보고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보도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득보다는 해가 훨씬 많다. 특정 정당의 대권 후보 경선이 무엇이기에 언론에서는 날마다 머리기사로 쫓고 까불어대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그런 보도가 우리들의 삶에 무슨 득이 될 것인가.

양식과 형평을 잃고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언론의 횡포가 우리들의 맑은 의식을 얼마나 얼룩지게 만들고 있는지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뒷날 산을 내려와 신문을 펼쳐보고, 솔직히 말한다면 이견 시끄러운 소음ियो 쓰레기터미구나 싶었다. 내 정신과 몸에 얼룩이 묻기 전에 얼른 방 밖으로 그 신문을 밀쳐버리고 말았다.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성질의 정보와 지식이 얼마만큼 소용되는 것인지, 제정신을 지니고 살려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가릴 줄을 알아야 한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다음과 같은 옛글이 떠올랐다.

해가 뜨면 밖에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방에 들어가 쉬고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밭을 갈아 먹고 사니  
누가 다스리건 그제 무슨 상관이나.

제대로 된 정치가 행해진다면 서민들의 입에서 이런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와야 한다. 정치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얹어야겠다. 올해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해라서 얼마나 또 시끄러울지 미리부터 염려가 된다.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또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표를 긁어 모으려고 이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국민의 감정과 의식은 사분오열되어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나더러 만약 이 나라의 대통령을 고르라고 한다면 우선 '대통령 병'에 걸리지 않은 인사를 선택하겠다. 어떤 병이든지 만성질환의 경우는 거의 치유가 불가능하다.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강한 정치가 아니라 부드러운 정치를 할 사람에게 점을 찍을 것이다. 절대권력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부드러운 것이 결과적으로는

강한 것이고 따라서 설득력을 지닌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한 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나이를 이 땅의 대통령 자리에 앉히고 싶다.

이 땅의 정치에서 우리는 일찍이 웃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무고한 서민들에게 잔뜩 겁을 먹게 하거나 불안에 떨게 하면서 팽팽한 긴장감만을 심어주었지 언제 한번 속 시원히 웃어본 적이 있는가. 웃음을 선사할 줄 모르는 정치는 향기 없는 꽃이나 마찬가지로다. 웃어야 일이 풀리고 복이 온다. 정치는 정직하고 역량 있는 각료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에 활기와 여유를 보태 줄 웃음을 선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올 봄은 내게 참으로 고마운 시절 인연을 안겨주었다. 순수하게 홀로 있는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는 말이 진실임을 터득하였다. 홀로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며 자유롭고 흥가분하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음을 뜻한다. 불일암에서 지낸 몇 년보다도 훨씬 신선하고 즐겁고 복된 나날을 누릴 수 있어 고마웠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때, 할 수 있다면 그런 오두막에서 이다음 생으로 옮겨가고 싶다. 사람이 많이 꼬이는 절간에서는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도 없다. 죽은 후의 치다꺼리는 또 얼마나 번거롭게 पे스러운가.

나는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그 두메산골의 오두막에서, 이다음 생에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앞뒤가 흰칠하게 트인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자 원을 세웠다. 그 원이 이루어지도록 오늘을 알차게 살아야겠다. 1992

##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 중 앙 모 임 (02-741-4696)

#### ■ 2025년 '맑고 향기롭게 6기 대학 장학생' 공모

(사)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자는 설립 취지에 따라, 청정한 마음과 탁월한 역량을 가진 불교 인재를 선발하여, 자신이 가진 역량을 더욱 크게 계발할 수 있도록 학업을 위한 생활비와 진로,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2025년도 제6기 대학 장학생을 공모 접수합니다.

#### ● 장학생 선발 대상

구분	신청 자격(가, 나, 다 모두 충족되어야 함)
가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으로 (사)맑고 향기롭게 발원 취지에 공감하며,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지닌 2년제 이상 대학생
나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가 사찰&불교단체 소속 신도(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예: 신도증, 추천서, 확인서 등) *단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된 종단의 사찰, 단체에 한함
다	소득 구간 5구간 이하

- **선발 인원** : 25명 내외 선발
  - **지원 금액** : 400만원 (200만원 \* 2회 분할 지급)
  - 본회 장학생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취업 컨설팅 운영
  - **서류 접수** : 4월 14일(월) 우편 소인까지 접수
-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 2025년 임시 이사회, 대의원 총회 개최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2024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대의원 총회(3월 22일)를 개최하여, 중앙모임을 비롯한 대구, 경남, 광주 모임의 2024년 회계감사 보고, 사업 결과, 결산 보고, 2025년 사업계획안,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총회에 앞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강 스님을 이사로 보선하였고, 덕조 스님을 7대 이사장으로 호선하였습니다.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재무보고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회 홈페이지 <나의 후원>에서 로그인 하신 후 <사업·재무보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자비의 등 달기'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은 법정 스님께서 불일암에 주석하실 때부터 주창하신 나눔 운동으로,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아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등을 밝히려는 취지로 시작되어, 현재는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맑고 향기

롭게 모임과 결연을 맺고 있는 이웃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 생필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 '자비의 등'의 동참금은 1인 최소 10,000원 이상(등표에는 1명의 이름만 기재함)
- 후원금을 보내실 때 입금자 이름 옆에 '자비'라고 써주세요.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817-01-0255-458 / 맑고 향기롭게

###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2일(수)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 연말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대 구 모 임 (053-753-8883)

### ● 자원봉사자 모집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지원활동(조리, 준비, 정리 등)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14시
- 청도 운문사 정기 봉사활동 / 쌀 지원 받음 / 매월 셋째 월요일 8시 30분 출발 / 10시~14시 봉사활동 / 16시 30분 도착
- 아나바다 장터, 사무보조 등 자원봉사자 모집(하루 2~3시간 의류 정리, 서류 정리 등)

### ●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아나바다 장터,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대여

### ● 법정 스님 문화관(5층) 상시 운영

### ●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무소유기행' 연2회 진행

### ● 어려운 이웃 반찬, 쌀, 물품 지원 사업

- 홀로어르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저소득 정신장애인, 난치병 환우 가정 지원

### ●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 어르신 정서 지원 사업 : 경로급식 및 행복치료

### ● 아나바다 장터 운영 : 난치병 환우 돕기 기금 마련,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생활용품 등 기부받음

### ● 환경지킴이 활동

- 생분해 용품 사용하기, 물티슈 안쓰기, 일회용 사용 줄이기 운동 전개

###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 경 남 모 임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광 주 모 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 천수다라니 33독송 기도

- 일시 : 4월 5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보름기도

- 일시 : 4월 12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일요법회

- **초청법사 : 월호스님(대한불교조계종 행복선원 선원장)**
- 일시 : 4월 13일(둘째 일) 11시
- 장소 : 설법전

### 지장제일

- 일시 : 4월 15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 관음재일

- 일시 : 4월 21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 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 성지순례

- 일시 : 4월 24일(목)
  - 장소 : 송광사
-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식 및 현묵 방장스님 승좌식

## 연등축제 제등행렬 동참

- 일시 : 4월 26일(토)

## 초하루 기도

- 일시 : 4월 28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새신도 교육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장소 : 설법전
-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제외

### 포교스님의 명상의 기초 / 이론과 명상

- 일 시 : 4월 12일(토) 14:00~16:00
- 장 소 : 설법전
- 동참금 : 회당 3만원

###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선(禪)명상

- 일 시 : 4월 19일(토) 18:30~20:30
- 장 소 : 설법전
- 동참금 : 회당 3만원
- 접 수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부처님오신날 연등공양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맑고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 공양을 받습니다.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02) 3672-5945

극락전(법당) 연등		지장전(법당) 연등	
대등(가족·영가등)	100만원	영가등	10만원
가족등	10만원		
도량(마당) 연등			
가족등·영가등·수기등			3만원

## 법정 스님의 소장품을 연중 기증받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품, 친필 서신, 선묵, 친필 원고, 초판본 저서, 사진, 영상자료 등 스님과 인연 있는 개인 소장품을 연중 기증받습니다.

자료(소장품) 기증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우편이나 방문이 어려우면 사무국에서 직접 찾아가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증받은 자료는 향후 건립될 '법정 스님 기념관'에 전시·보관될 계획 이오니, 법정 스님을 그리워하는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처 :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02)741-4696  
clean94@hanmail.net
- 주 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 내 (사)맑고 향기롭게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 ■ 정기 후원·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